

▶ 전주부채문화관

'전주를 보다 Digital 선면전'

부채 속에 명소가 있다



유백영 '전주유람-풍남문'

(사)문화연구관 전주부채문화관은 오는 8일부터 '전주를 보다 Digital 선면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사진작가 김영채·박노성·유백영의 작품을 전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 조충익의 부채에 실었다.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전주만의 색채를 입힌 작품을 선보인다.

유백영 작가는 '전주유람'을 주제로 전주를 이미지화 한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의 첫 도착지인 전주역에서 덕진공원, 한벽루, 전주한옥마을, 전주향교, 전동성당, 풍남문까지 전주를 유람하듯 전시작을 구성했다.

그는 2001년부터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속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무대 위 예술가들의 사진을 포착, 공연사진 부문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선 그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김영채 작가는 '전주팔경' 중 하나인 덕진채련(덕진공원)에 자생하는 연꽃을 다양한 각도의 앵글에 담아낸다. 덕진채련은 기린토월(기린봉), 한벽정연(한벽루), 남고모종(남고산성), 다가사후(다가산), 비비낙안(삼례 한내면), 위봉폭포(완주 소양면), 동포귀범(완주 용진읍)과 더불어 전주의 대표적 명소로 손꼽히는 곳.

김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곳을 배경



김영채 '덕진채련'



박노성 '생명'

풍남문 · 덕진공원 · 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 명소 그려진 작품 선배

으로 근 40여 년 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전주전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조류들을 사진에 담아낸 박노성 작가. 전주시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는 길이 30km의 1급 하천에 서식하는 부채꼬리딱새·물총새·뽕박새·황조롱이·쇠백로 등의 갈나리의 움직임을 통해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이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한 조충익 선자장은 사진작품을 부각하기 위해 부채 손잡이를 대나무 뿌리 모양 날 것 그대로 살려 작업을 진행했으며, 각기 다른 부채 모형 설계로 선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항미 관장은 "전주에서 동지를 틀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진작가 3인 작품으로 탄생했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새롭게 읽고 전주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주를 담은 아름다운 사진작품과 전주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부채를 소개하고자 순회 전시를 진행한다. 4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진지하게 성찰한 전주의 모습이 선자장의 손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새롭게 읽고 전주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주를 담은 아름다운 사진작품과 전주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부채를 소개하고자 순회 전시를 진행한다. 4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11일까지 동문그림가게 참여작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은 시민 창작활동과 전시를 지원하는 '동문그림가게'의 참여 작가 모집을 11일까지 진행한다.

'동문그림가게'는 시각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시민의 작품을 발굴해 전시하는 프로그램. 지난해엔 총 27명의 시민 참여 작가를 모집해 211점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더욱 체계화된 운영전략을 통해 시민 참여 작가의 창작활동과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 참여 작가에게 전시공간(전주시민놀이터)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함은 물론 2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연계 프로그램인 '하루예술

수업, 원데이클래스'의 예술강사로 참여하게 되며, 동문거리 내 상가에 작품을 전시하는 '삼인삼(#in#)'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동문그림가게' 신청은 전시가 가능한 시각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캐리커처, 엽서, 민화 등 미술 분야를 비롯한 생활 속 유용한 메모꽂이, 캔들, 도자 등 공예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의 작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 및 전화(063-287-2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지구촌 태권도복 나눠주기 운동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개발도상국 등의 태권도 활성화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지구촌 태권도복 나눠주기 운동을 진행한다.

지구촌 태권도복 나눠주기 운동은 국내 태권도장 및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태권도복을 기증받은 후 개발도상국 등 태권도 저개발국가에 도복을 전달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

가국 등을 비롯해 총 2,491벌의 태권도복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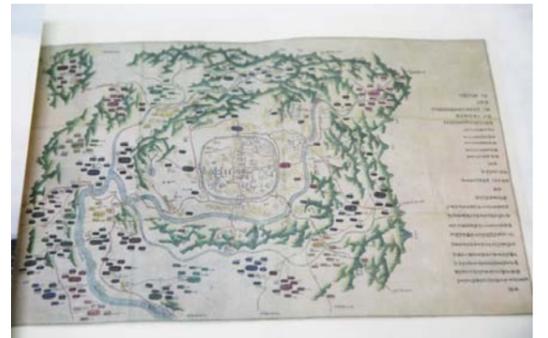
재단은 태권도복을 기증한 도장·단체 등에게 이사장 명의의 기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기증도복의 활용 실적 등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후 기증자와 공유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과 재외한국문화원, 해외 파병 軍부대 등과의 협조를 통해 태권도복이 꼭 필요한 국가와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초등 3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전주 전통한지 제작 고지도 수록

전주 전통한지로 제작된 고지도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수록돼 배포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시 관내 초등 3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지역교과서) 내에 삽입된 고지도로 전주 전통한지로 제작해 7,000부를 공급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 전통한지로 제작된 고지도.

전통문화전당, 7000부 공급기로

이 고지도 제작을 위해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전주한지의 주원료인 다펀나무를 이용해 지역 한지장인과 함께 3개월 동안 전통 방식 한지뜨기를 통해 전주한지를 제작, 교과서에 수록 가능한 수준의 고지도 품질을 만들어냈다.

고지도는 사진과 비견되는 한 폭의 기록화로 소장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전주의 옛 모습을 잘 표현해 학생들에게 전주의 옛 모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센터국장은 "한지 사회교과서 제작 보급 사업이 전주전통한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뿐 아니라 전통한지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한지 사회교과서 제작보급사업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됨을 기원하며

10일 새만금 신시도 광장서 '전북영산문화축제'

전라북도영산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진성 슌)는 10일 오후 1시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제1회 전북도영산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영산문화축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됨을 하늘에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불교 안에서만 행해지던 것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영산작법'의 대중화와 더불어 새만금 건설로 죽어간 어류축생들의 무주유주 고향과 차가운 바다에서 억울하게 숨겨진 세

월호 청소년들의 원혼을 천도하는 자리이다. 더불어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선 전국의 태고종 불자 5천여 명과 스카우트 가족 및 일반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소원풍선 1만개를 새만금 하늘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불교대학교 전북총무원 원장인 진성 슌은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조상들이 남겨준 전통문화인 영산문화에 대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첫 걸음을



내담는 자리"라면서 도민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